

분홍색 겹벚꽃으로 물든 완산의 꽃동산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지난 13일 전주시 완산공원 꽃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예년에 비해 10여 일 일찍 개화한 겹벚꽃 색깔을 걸으며 봄날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이뤄내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주시가 개최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날 참석한 문화·지방재정전문가들은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위해... 특별법 제정 정책세미나
보통교부세, 전주 인구비율 정액교부 비율로 설정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연계·계승 추진방안 제시

제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이 특별법에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쫓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이 ‘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지역문화성장’을 주제로 한 기초강연을 맡아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추진하는 전주시의 계획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인구의

49.5%, 1000대 기업 본사의 76.3%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의료와 복지, 문화의 격차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로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재정여건 및 세수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해 설명한 뒤, “대한민국 전통도시 전주라는 명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사업 추진을 통

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관광 허브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보통교부세를 전주시의 인구비율을 정액교부 비율로 설정하는 방안 △세종특별자치령 재정부족분의 일정부분을 추가하는 방안 등 특별법 제정시 지방세 세율특례나 재정특례 규정 제정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운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가 ‘전주 문화특별시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시대 전주 문화특별시를 둘러싼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과의 연계와 계승을 통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정책세미나에 이어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문화비전’ 용역과 시민연구모임을 통해 전주 문화특별시의 비전과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법(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4주기

“지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 희생자 추념식... ‘희망의배’ 전달

세월호 참사 발생 4주기를 맞아 지난 13일 오후 6시 전북 교육청 앞마당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적극적 기억,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중·고등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 공연과 지평선고등학교 학생의 추모연극 등 학생들의 다양한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친구인 남원중앙초등학교 흥정표 교사가 친구를 그리는 공연도 열렸다. 또 세월호 참사를 겪은 고등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희망의배’를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추념식과 함께 도교육청 1층 갤러리에는 한국문화협회 작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담은 다양한 추모작품들이 전시됐다. 한편 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계기교육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강화·익산서 동시 채화

전국체전 성화 마니산서 장애인체전은 미륵사지서

익산시를 비롯 전북 14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가 강화 참석단과 익산 미륵사에서 채화되어 함께 봉송된다. 13일 전라북도 체전준비단(단장 김영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개별 봉송되었던 성화를 이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서는 함께 동시 봉송하기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체전의 성화는 강화군의 상징이자 단군설화가 깃든 민족의 영산인 마니산 정상에 있는 단군왕검이 천제를 올렸다는 참성단에서 채화되고,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는 개최시도에서 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백제 최대의 가람(승려가 살면서 불도를 닦는 곳)인 미륵사에서 채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양대 체전 성화는 별도로

채화되어 개최 시도를 순회 봉송했지만, 전라북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칸막이를 걷어낸다는 의미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사용되는 성화를 각각 채화하여 함께 봉송하는 행사를 기획, 양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냈다. 2018년 10월 3일 전국체전 성화는 강화군 마니산에서,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는 익산 미륵사에서 각각 채화되어, 전라북도청 광장에 안치한 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4일간)까지 익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을 동시 봉송한다. 한편, 전국체전 성화는 개막식이 열리는 10월 12일 익산시 일원을 봉송하고 익산종합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되며,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는 10월 25일 개막식 날 익산시 일원을 봉송하고 19시 익산종합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이번 성화의 동시봉송 거리는 1,000km에 110구간(주자66, 차량 44)이며 주자는 600명이 봉송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엄마, 다녀올게”



그러고는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그 날 새들이 날았던가
꽃이 피었던가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는 봄...
해가 지면 비둘기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의 여행은 끝이 없다

이제는 돌아오렴
꽃피처럼 날아서
수천수만의 흩씨로
이제는 돌아오렴

